

작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 수 사도 요한
------------------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토요일 주일미사: 주일학교 방학기간 없습니다.	주 일 학 교 (토)	유초등부 : 방학(5/24~8/21), 개학일 8/22 중고등부 : 방학(5/24~8/21), 개학일 8/22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예 비 신 자 교 리
평 일 미 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연중 제11주일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이 할 일은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려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미사 시작 전, 예수성심성월 기도 바칩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인간적 신적 사랑을 드러냅니다. 신자들은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함으로써 기도와 희생, 보속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일학교가 두달 동안 방학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토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6월 기쁨의 샘 꾸리아 월례회의(제347차)

6월 21일(주일) 미사 후 3시 15분, 장소는 소성당입니다.

독서팀 모집 안내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할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길기은 크리스티나 (☎ 9012-0578)

빈첸시오회 후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 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잠언 3:27)

* 문의 : 빈첸시오 회장 이영학 시몬(9619-6683)

* 후원 계좌 :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인터넷 교리 안내

예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6월7일) 주일헌금 \$1,959.

감사헌금 남궁준 유스티노 USD 340,
박건호 요셉 · 여가은 로사 \$500.

교무금 내신 분 (6월 6일 ~ 6월 12일)

김봉희 피아 6월, 류호민 데레사 5-8월, 박재성 노엘 6월, 서은선 세실리아 6월, 이상은 요아킴 6월, 이승주 아네스 3월, 이철규 츠카랴 6월, 임도란 소피아 6월, 장지수 안젤로 6월.
■ 9세대 \$1,420.

◆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시 **입금자 이름, 세레명을 꼭 같이 적어주세요!**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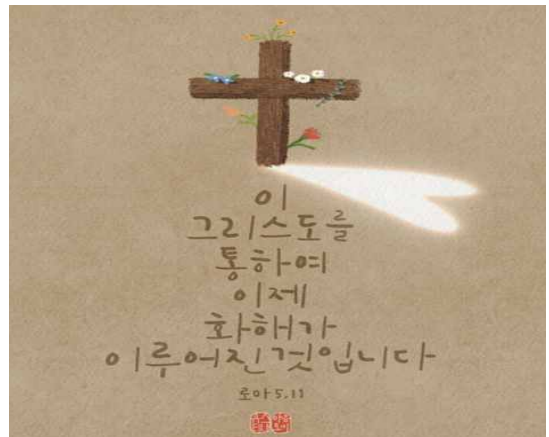
미사 참례자 수(지난 주)

6/7(일)	평 일			
2:00	9(화)	10(수)	11(목)	12(목)
182	13	36	10	18

* **봉헌 가족** : 우승민 스테파노 · 박소신 아델라이드

*** 소공동체 모임일정(6월15일 ~ 6월21일)**

· 6월 15일(월) 18:30 3구역 3반 이난주 크리스티나
780 Waterfront key Function room



저 자 씨

◆제1634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2026년 6월 14일(가해) 연중 제11주일



▶엔리코레 포, 1914년경, 프레스코, 산 달마초 성당, 이탈리아

입 당 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 1 독 서 탈출 19,2-6ㄱ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화 답 송 
우 리 는 주 님 의 백 - 성 그 분 목 장 의 양 - 떼 라 - - 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 독 서 로마 5,6-11 <아드님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복 음 환 호 송 
알 렐 루 야 알 - 렐 루 야 - 알 렐 - 루 - 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 음 마태 9,36-10,8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영 성 체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입당송: 2 봉헌: 213 · 219 성체: 167 · 176 파견: 10

독수리 날개



이지목 안셀모 신부
거진 승리의 모후 본당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제 같다.” 분명 새 사제인데, 새 사제 같다는 말은 깊은 성찰입니다.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되찾은 기분이며, 함께 걸어갈 든든한 형제 사제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본디 먼저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제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청하는 것이 기꺼운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뽑으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참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시선과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의지와 마음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도들이 참 부럽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시다만,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에 그들이 굶주리길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힘차게 나아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채워주길 바라며 더 많은 방식으로 사랑을 채워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려줍니다.

하느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짐’으로 회상합니다. 가장 든든한 뒷배가 하느님이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솔모루 보좌 시절, 새로이 부임하셨던 김현준 울리오 신부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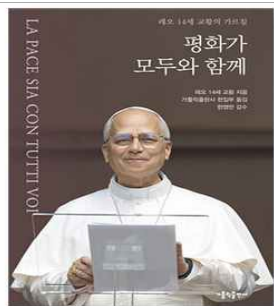
서품식이 떠오릅니다. 초대받은 본당 식구들이 정해진 앞자리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어느 본당의 아무개를 호명합니다. 흘끔흘끔 우리 본당 누구를 쳐다보면서 숨죽여 기도하는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저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왔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인간 아무개가 죽고, 사제로 일어서는 순간이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죽었다.’고 다짐하는 순간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누군가는 별정계 달아오른 새 사제의 얼굴을 보고 숨죽여 웃기도 하고, 덩달아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길에 필요한 기도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서품받는 날의 회상이, 어느 신자에게는 어느 신부님이 성사를 베풀어, 신부님과의 한 끼 식사가, 독수리 날개를 탔던 기억이 됩니다. 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불러주며, 함께 다독이며 기도했던 나날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날개를 타고 지금으로 건너온 값진 하루를 감사하도록 합시다.

눈물범벅이 된 줄도 모르고, 버벅대고 뚝뚝거리는 새 사제의 서투른 몸짓을 보는 선배 사제들은 또



레오 14세 교황의 가르침 평화가 모두와 함께

레오 14세 교황 지음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옮김 | 가톨릭출판사 | 20,000원

레오 14세 교황의 초기 연설과 강론을 발표 순서대로 엮은 책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당부는 물론, 각국의 지도자 및 주교단과 추기경단, 새 사제들, 젊은이들, 언론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중을 아우르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교황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평화와 사랑, 일치 의미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우리 삶의 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황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지오 활동 인연

아름다운 계절 5월, 성모님의 달을 보내면서 90세 까지 성모님의 군단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신 어머니 사례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1990년쯤에 이웃 아파트에 딸 둘이 있는 젊은 아기 엄마가 아들을 기대하면서 공을 들여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여 출산하고 보니 딸 쌍둥이를 낳아 딸만 넷이 되었습니다. 실망한 아기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면서 딸 둘도 돌보지 않으며 갓난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찾아가셔서 ‘나는 ○○성당에 다니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안나라는 사람이다.’ 라고 통성명을 하여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도 딸 셋이 있는데 그중에 큰딸이 딸 다섯을 낳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이 지금은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며 어르고 달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설득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딸 셋을 낳았다고 다독이며 매일 찾아가 아기를 돌보고, 밥해주고 미역국도 끓여 나르며 산후조리를 자청하셨습니다. 한 달정도 정성껏 돌보니 아기들도 예뻐지고 생긱생긱 웃는 아기를 보며 산모도 정신을 차려 조금씩 일어나 움직이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둘째가 유난히 어머니를 따랐고 좋아하면서 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백일이 되면서 방문 횟수를 줄이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셨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다른 본당 관할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고, 방문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잊었다고 합니다.

그 후 30년쯤 지났을 때 손주가 신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더랍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흡사하게 꾸며져 있었다면서요. 그 집 가족 모두가 신앙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어머니는 좋은 인연인가보다 생각하며 손주에게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상견례를 하는 날이 찾아왔고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손주의 여자친구는 과거 어머니께서 돌보던 집의 큰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가족은 어머니께서 살던 집에 이사 와서 입교하여 하느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5년 전, 성모님의 달인 5월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혼배성사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남매를 낳아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레지오 활동 중에 만났던 인연이 30년 후에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기적 같은 레지오 활동 사례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9일 기도

|기간| 6.17(수)~25(목)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지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



- | | |
|-----------------------------|---------------------------|
| 6.17(수):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6.22(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
| 6.18(목): 상호 존중을 위하여 | 6.23(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
| 6.19(금):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 6.24(수):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
| 6.20(토): 이산가족과 북향민을 위하여 | 6.25(목):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
| 6.21(주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